평창올림픽 '안방에서도 실감나게'

가상현실 동영상으로 스키점프 시청 등 KT, 최첨단 IT 기술 구축·활용 계획 밝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열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통신망 및 5G 올림픽 준비현황 기자간담회에서 오성목 KT네트워크부문 부사장이 360도 VR을 시연하고 있다.

서울에서 180㎞ 떨어진 평창에서 열리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안방에서 더욱 실감나게 즐길 수 있게 된다. 360도 가상현실(VR) 동영상으로 스키점프를 시청하고, 홀로그램 입체 영상으로 국가대표 선수 인터뷰를 보는 식이다.

KT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5G 준비현황' 간담회를 열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최첨단 정보통신기술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KT는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통신 파트너로서 대회통신에 사용되는 약 1400㎞의 유선 통신망과 최대 25만 단말을 수용할 수 있는 무선통신망, 방송 중계망, ICT기반시설, 통합보안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다.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 부사장은 "현재 평창동계올림픽의 대회 통신망은 30% 이상 구축된 상태로 올해 말 모든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2017년부터는 본격적인 대회통신망 운영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KT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실시간 5G 서비스인 '홀로그램 라이브'와 '싱크뷰(Sync View)', 360도 VR 동영상 경기 중계 기술을 선보인다. 시청자가 올림픽 현장에서 경기를 즐기는 듯한 생동감을 주는 것이 목표다.

싱크뷰 서비스는 경기에 직접 참여하는 선수의 시각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술이다. 선수 유니폼과 헬멧 등에 16g 초소형카메라를 탑재해 5G 기반 기술인 '액티브 안테나(Active Antenna)'를 통해 초고화질영상을 실시간 전송한다.

서로 다른 영상을 동기화하는 기술로 선수시점 영상과 중계화면을 선택해 시청할 수 있다. 시청자가 마치 선수가 된 것 같은 생생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이 기술은 스키 점프와 스켈레톤 등 올림픽 주요 종목에 적용된다.

360도 가상현실 동영상 기술은 시청자가 원하는 방향, 원하는 각도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어 집에서도 관람석에 있는 듯한 현장감을 준다. 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가상현실 기기가 필요하다.

홀로그램 라이브는 초고화질 원격 홀로그램 서비스로 인물이나 사물을 입체 영상으로 보여준다. 이 기술은 방금 경기를 끝마친 선수가 순간 이동돼 시청자 눈앞에서 인터뷰하는 상황에 쓰인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프리스타일 스키 슬로프스타일 국가대표 천호영이 홀로그램 라이브 기술로 평창 현지 상황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타임슬라이스 기술은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쪼개 분석한다. 분초를 다투는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경기 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안전한 올림픽 운영을 위한 최신 기술도 공개됐다. 5G 세이프티 서비스는 드론과 지능형 시스템을 연계한 안면인식 솔루션이다. 드론이 촬영한 실시간 영상정보를 안전요원과 관제센터에 전달, 사전에 등록되지 않거나 위험 행동이 포착된 대상에 대한 즉각적 대처를 돕는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김상표 부위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이는 5G 기술들이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글로벌 통신기업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세계 최첨단 5G올림픽으로 만들어 전 세계 38억 올림픽 시청자에게 기술력을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근기자

이승훈 빙속 세계선수권 남자 매스스타트 금메달

7분18초26 기록 2위와 0.06초 차이로 극적인 역전승 1위 차지

이승훈(28·대한항공)이 14일(한국시간) 러시아 콜롬나 스피드스케이팅센터에서 열린 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매스스타트에서 7분18초26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위 아리안 스트로팅가(네덜란드·7분18초32)를 0.06초 차이로 제치며 극적인 1위를 차지했다. 스트로팅가는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다.

이승훈은 지난해 처음 종목으로 채택된 매스스타트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12위에 머물렀다.

이승훈은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못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며 "이 우승을 이어가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2위와의 차이가 0.06초로 마지막까지 아슬아슬했다.

이승훈은 한 바퀴를 남기고 4위를 유지하다가 마지막 코너에서 안쪽을 파고들어 순식간에 스트로팅가와 알렉시 콩탕(프랑스)을 따돌렸다.

매스스타트는 여러 선수가 동시에 400m 트랙을 16바퀴 도는 방식으로 기록보다 순위가 중요하다. 쇼트트랙을 롱 트랙에서 하는 것으로 보면 맞다.

이승훈은 쇼트트랙 선수 출신답게 노련한 운영으로 극적인 역전을 이끌었다.

이승훈은 "마지막만 노리고 있었다. 계획대로 마지막에 기회가 온 것 같다"며 "쇼트트랙 경험이 확실히 매스스타트에서는 도움이 된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여자 매스스타트에 출전한 김보름(23·강원도청)은 8분17초66으로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다.

1위를 차지한 이반니 브로딘(캐나다·8분17초53)에게 0.13초 뒤졌다. 동메달은 다카기 미호(일본·8분17초68)가 차지했다.

그는 "막판에 추월을 하면서 3위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은메달이라 기뻤다"면서도 "금메달을 따지 못한 건 아쉽다"고 했다. 김보름은 한국 여자 장거리 간판으로 이번 시즌 월드컵 1차 대회 매스스타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러나 2차 대회에서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어 3·4차 대회에 나서지 못했다.

/김민근기자

전북생활체육회, 공식 해산 및 청산안 의결 통과

전라북도생활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체육단체 통합을 앞두고 15일 열린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전라북도생활체육회 해산 및 청산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다만, 해산은 원활한 통합 작업을 위해 내달 3일 통합체육회 창립총회와 동시에 자동 해산하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1990년에 도민들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생활체육회는 25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통합 전라북도체육회로 출범하게 된다.

도 생활체육회 회장인 송하진 도지사는 "올해는 전라북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한가족이 되는 역사의 해이다"며 "생활체육은 도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체육의 생활화와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생활체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이 가시화 단계까지 온 현 시점에서 시, 군 종목단체의 통합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생활체육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근기자

군산 새만금마라톤대회 3월15일까지 참가자 접수

'2016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가 오는 4월10일 군산월명종합경기장에서 개막한다.

군산시는 올해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참가자 접수를 오는 3월15일까지 받는다.

군산시와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주최하고 군산시민체육회와 전라북도육상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IAAF 국제육상연맹의 공식인증을 받아 올해로 다섯 번째로 치러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국내 마라톤 우수선수 발굴과 아마추어 마라톤 동호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해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시는 대회 코스 구간에 대한 정비를 통해 엘리트 선수들과 동호인들에게 최적의 코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마라톤 종목을 Full코스, 10km, 5km로 축소해 대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내는 물론 외국의 우수한 엘리트 선수들을 초청하는 한편 공중파 방송 중계를 통해 대회 현장감을 생생히 전달할 계획이다.

대회 종목은 엘리트, 마스터즈(풀코스, 10km, 5km) 부문으로 치러지며, 국내외 1만5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고의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KBL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 22일 개최

남자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2015~2016 KCC 프로농구 시상식을 정규리그 종료 다음날인 22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반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연다고 15일 밝혔다.

KBL은 "플레이오프가 종료된 후 개최한 종전과 달리 10개 구단 모든 선수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규리그 종료 직후 시상식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KBL 출입기자단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와 감독상, 신인상, 식스맨상, 베스트5상 ▲감독 및 기술위원회가 선정한 최우수수비상 ▲심판 및 경기기술위원이 뽑는 이성구 페어플레이상 ▲팬들의 투표로 선택된 인기상 등에 대한 시상이 있다.

MBC스포츠 플러스를 통해 생중계된다.

22일 현재 KBL 웹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토레이 인기상' 투표는 오리온 이승현이 6953표로 2위 kt 이재도(6305표)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21일 오후 6시에 투표는 종료된다.

/김민근기자

Lets Run FARM 장수 (구. 장수육성목장)

우리나라 말 산업을 견인하는 전초기지입니다.

Lets Run FARM 장수 는

경주마 및 승용마를 아우르는
명마생산의 메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천연의 목가적 풍경과
다양한 말 문화 체험프로그램으로
최고의 힐링 쉼터를 제공합니다.

명마 생산과 육성의 메카 Lets Run FARM 장수